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열렬한 애국심과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속에 천연수림지대인 마식령에 세계적인 스키장이 건설되더니 올해에는 새로운 속도창조로 세계일류급의 아이들의 궁전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세상에 둘도 없는 로동자합숙, 현대적인 수산기지를 비롯하여는 나라에 대규모건축물들과 생산기지가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있다.

얼마전 군인건설자들은 대소한의 강추위와 폭설속에서 세찬 파도와 싸우며 화악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내달려 뗏넌이 걸려야 한다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건설을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공하였다.

조업을 앞둔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곳 수산사업소건설을 맡기신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방대한 공사와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조업을 눈앞에 둔것은 놀라운 기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조선속도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육도에 의하여 전국의 육아

##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온 나라에

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가 현대적인 항만시설들은 물론 수산물생산과 어로공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춘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섰다.

이것은 령도자의 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이 땅우에 조선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박원을 일떠세워가는 군대와 인민의 투쟁정신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들이 열걸음 백걸음에 이룬것을 단 한걸음을 내짚으며 비약하는 공화국의 단숨에의 정신, 조선속도는 비단 이곳에서만 창조된것이 아니다.

지난해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끝내고 즉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개건공사에 진입한 군인건설자들은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이곳에서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행복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였다. 세상에 둘도 없는 로동자합숙을 일떠세울 일념으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달려나온 군인건설자들도 지난해 겨울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날에날마다 단숨에의 기상을 떨침으로써 180여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로동자궁전, 로동자호텔을 건설하였다.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수도 없고 예측할수도 없는것이 시간마다

분마다 놀라운 전변과 변혁을 이룩하는 공화국의 조선속도이다.

이뿐이 아니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그 투쟁기풍과 일본새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과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지난해에는 《마식령속도》창조열풍으로 동해의 어

장이 들끓었다면 올해에는 조선속도창조투쟁으로 몽금포중심어장을 비롯한 서해의 어장이 동해에 울려 퍼진 만풍가에 풍어기로 화답하고 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은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현대적으로 변모시키고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지금 공화국은 령도자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최대성



5월1일경 기장개건보수공사가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 북녘사회가 가진 사랑의 힘

평양에서 4주이상 머물면서 각계각층과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이 사회의 다양한 곳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북녘사회는 한마디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고싶다.

서방세계 사람들 특히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의 국민들은 북녘사람들을 고약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꼬집으며 미개하다고 혹평해왔지만 북녘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의 지적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이다.

북녘동포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개명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인생관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며 어떤 삶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찬 생애라는것을 각 방면에서 교양받는다. 북녘의 언론매체들은 그 어느것을 접해도 삶의 지표를 제시한다. 북녘의 조선중앙TV방송은 그 프로그램들 내용 자체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위한 교양물이다.

령도자의 인민사랑, 인민

들의 령도자에 대한 사랑과 흠모 등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사랑의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는것이 북녘의 언론매체들의 사명과 역할이다. 이것은 정칙에 국한된것만이 아니다. 경제, 사회, 외교, 군사, 교육, 체육, 문화 등 사회전반에도 사랑의 철학이 기둥을 이룬다.

나는 한달간 방북기간을 통하여 북녘사회가 가지고있는 힘은 핵무기보유나 미국까지 날라가는 무장력을 갖췄다는 국방력보다는 북녘사회가 가지고있는 사랑의 힘이 그 무장력보다 수천배 강한 저력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발견할수 있었다.

바로 그 유산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물려받아 이민위천의 유충정치를 한치의 드림없이 성실하게 실천해나가는 새 지도자가 김정은령도자이시라는 사실도 피부로 느낄수 있었다. 북녘동포들은 그이에 대해 하나같이 사랑의 지도자라고 부르면서 군사, 정치, 경제, 사회, 음악예술 등 전반적인 방면에도 도통한 령도자이라고 칭송하고있다.

북녘사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일심단결을 파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음악예술공연장에 나타나시면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배경화면에 북녘의 령도자들이

등장하면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다. 북녘동포들은 그 배경화면에 김정은령도자께서 나타나시면 언제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였다.

소학교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그렇고 중학교학생들이나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령도자의 인민사랑, 인민의 령도자에 대한 흠모와 사랑은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북녘사회분위기는 군인들, 노동자들, 농민들 그리고 일반공무원들의 경우에도 례외는 없었다. 다시말하면 령도자-당-군민이 완전히 하나였다. 그 바탕에는 모두 사랑이 깔려있었다.

그 사랑도 때론지 않았다. 순수했다.

이것이 북녘사회가 사랑으로 뭉쳐진 일심단결의 사회라는 사실을 이번 방북에서는 너무나 실감나게 체험하는 계기를 가질수 있었다. 이렇게 사랑으로 결집된 북녘사회는 자위력에서도, 군사강국의 지위를 갖춘 첨단과학기술에서도, 종합음악예술에서도 최고수준의 실력을 파시했고 그리고 정치사상과 철학에서도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수 없는 수준을 갖췄기때문에 그 미래는 밝고 창창할것이라고 생각하며 평양비행장을 떠났다.

(《민족통신》에 실린 글중에서)

## 전반적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주제42(1953)년 1월부터 공화국에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어 모든 주민들이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생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정칙에 의하여 가뭇치려했던 전쟁의 포화속에서 마련된 전반적무상치료제는 60여년의 년풍을 아로 새기고있다.

주제69(1980)년 4월 인민보건법의 채택으로 인민들의 병치료와 건강증진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며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킬수 있는 법적당도가 확고히 마련되였다.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도시와 농촌 그

어디에나 병원, 진료소들이 훌륭히 꾸려져있어 사람들의 병치료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환자들에 대한 진찰로부터 검사, 진단, 치료 등이 다 무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입원비, 약값 등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공화국의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가 일정한 주민세대를 맡아 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사회주의예방의학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가장 우월한 주민건강관리제도이다.

공화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의사가 집집마다 찾아가니면서 진찰도 하고 치료도 하는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어왔다.

의사담당구역제에 따라 의

료일군들은 담당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의 건강을 정상적으로 보살펴주고 환자들이 생기면 제때에 치료대책을 세워준다.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는데 맞게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진료소단계에서 책임지는 호담당동록관리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으며 주민들은 담당의사의 관심속에서 태어나서부터 건강상태, 질병상태를 기록하는 건강관리부를 가지고 병을 보다 과학적으로 예방 및 치료할수 있게 되었다.

의사담당구역제는 호담당제와 직장(강)담당제로 나누며 근로자들은 가정에서는 호담당의사로부터, 일터에서는 직장(강)담당의사로부터 의료봉사를 받는다.

본사기자

하루가 저무는 저녁,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서 사는 원사, 교수, 박사 김상욱선생의 가정에서 오라비가 벌어졌다. 김상욱선생의 우글은 노래소리에 이어 딸, 사위가 부르는 민요가락이며 손녀들이 펼쳐놓은 흥겨운 출판...

얼마나 화목한 모습인가. 얼마나 행복한 생활인가.

이런 모습은 비단 이 가정에서만 펼쳐지는것이 아니다. 얼마전 10번째 자식을 낳은 평안북도 천마군에 사는 모성영옹 바깥쪽의 집에 서도, 평범한 농촌마을의 세쌍둥이가정이며 외진 동대섬과 산골마을 집집에서도 행복의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

하루를 위훈으로 빛내인 자를 축삭이며 아버지와

딸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걷는 퇴근길에도, 열면 전쟁으로 한밤을 지새우는 연구사가가정의 꺼질줄 모르는 불빛에도 이 나라 집집의 행복한 생활이 그대로 비껴여 있다.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는데

## 가정에=비빔=두=모습을=두고

서 삶의 보람과 영예를 찾고 그 길에 참다운 행복도 있다는 고상한 틀리로 맺어진 가정의 사랑이고 행복이기에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하나의 대가정으로 사는 화목한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로 되고있다.

하지만 자본주의나라의 가정들에서는 어떤 비극이 벌어지고있는가.

연제인가 일본의 고베시에서는 30대의 한 녀성이 태어난지 5개월밖에 안된 자기 아들을 무참히 죽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보다 앞서 오사카부에서는 37살 난

이 없어 키를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할수 없이 위생실에서 아이를 낳은 다음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주저없이 말하였다.

그런가하면 어느 한 나라에서는 한 남성이 자기 아내와 어린 자식 5명을 총으로 쏘아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남편과 아내의 따뜻한 정이 넘치고 귀여운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울려야 할 한가정의 울라리에서 벌어진 이 살인사건은 자기 한몸의 향락과 부귀를 위하여 처자의 목숨도 거러낌없이 앗아가는 자본주의사회의 비참한 가정 현실인것이다.

## 특색있는 전문관광을 더 많이 개발하겠다

\* 김영일 국가관광총국

를히 꾸러지고 평양-향산관광도로, 고려호텔, 향산호텔 등 편리한 관광환경과 조건들을 잘 갖추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백두산지구와 칠보산지구, 구월산지구, 정방산지구와 같은 명승지들이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관광명소들로 더욱 훌륭히 꾸려졌다.

최근에만 해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하여 도처에 현대적인 문화 및 체육관광시설들이 일떠서고 관광하부구조를 완비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원산-금강산지구를 세계적수준의 관광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가 하면 각 도들에서 자기 지방에 맞게 특색있는 관광지들을 꾸리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쓸모있는 관광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얼마전에 평양관광대학이 개학하고 각 도 사범대학들에 관광학부가 새로 개설되었다.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지역들사이에 새로운 관광항로와 해상로들을 개설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되고있다.

기자: 우리 나라의 주요 관광지들에는 어떤 대상들이 속하는가.

김영일: 우리 나라에는 평

양, 개성, 원산, 함흥, 남포, 사리원, 신의주, 청진 등을 비롯한 중요도시들과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칠보산, 구월산, 울림폭포와 같은 이름난 명승지들 그리고 기념비적건축물들, 역사문화유적을 비롯하여 관광대상들이 많다.

평양시만 놓고보아도 외국의 관광객들은 주제사상탑, 인민대학습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지하철도를 비롯한 건축물들과 문수물놀이장, 트라인민유원지, 평양민속공연, 개신청년공원 등은 물론 역사유적들과 같은 다양한 대상들을 돌아볼수 있다.

역사문화도시인 개성시에서 관광객들은 왕건왕릉, 공민왕

릉, 령통사를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자랑찬 력사와 문화전통을 보여주는 유적들과 관광점을 참관하게 된다.

원산지구에서는 울림폭포 참관과 마식령스키장에서의 스키관광, 생태학적으로 뛰어난 원산 명사십리에서의 해수욕도 즐길수 있다.

우리 나라에는 관광객들은 당일관광으로부터 시작하여 15일이상에 이르는 다양한 관광일정을 보낼수 있다.

기자: 최근 국가관광총국에서 특색있고 다양한 목적과 유형의 관광들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영일: 지난 시기에는 관광이라고 하면 도시들과 역사유적, 명승지들에 대한 참

관이 위주로 되어있었다면 오늘날에는 문화관광, 체육관광, 건축관광, 등산관광 등 다양한 관광형태들이 많이 개발되고있다.

혁명가국과 교향악, 교예 공연을 비롯한 예술공연관람, 력사박물관과 민속박물관, 미술박물관을 비롯한 박물관참관, 민속음식맛보기, 민속풍습체험 등으로 묶어진 문화체험관광일정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에 흥미를 가지는 외국의 관광객들이 좋아하고있다.

명승지들에 대한 등산관광도 인기를 끌고있다. 이전에는 등산에호가들이 명승지들에서 하루동안 등산을 하고는 호텔에 돌아와 휴식하곤 하였지만 이제는 등산에호가

들이 호텔이 아니라 야외에 천막을 치고 야영생활을 하면서 등산을 하고있다.

기념비적건축물들과 묘향산의 보현사를 비롯한 력사 유적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민족의 건축발전력사와 오늘을 잘 알수 있게 하는 건축관광도 있다.

체육관광열기가 높아가는 속에 올해 4월에 있는 국제특상연맹-제27차 만경대상마라손경기대회에는 200여명의 마라손에호가들이 참가하

